2019 CALSIAN TEAM SE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김정훈 선배님 … INTAKE P.2

조완일 선배님 … SENSOMETRICS P.7

박명수 선배님 … 비피도 연구소 P.12

갈수록 중요해지는 식품산업과 벤처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에 후회는 없다.

식품생명공학전공 06학번
식품벤처기업 INTAKE 이사
김정훈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06학번 김정훈입니다. 학교는 한 10년정도 다녀서 2015년에 졸업이죠."

현재 재직 중이신 'INTAKE'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INTAKE는 2013년에 설립되었구요, 대학 동기인 식품공학 출신 한녹엽 대표와 함께 간편식 no.1 스타트업을 목표로 헬스 케어 푸드를 제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브랜드 목표에 대해 적립을 해 나가는 중인데, 결국은 단순한 식사에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저희가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한다는 개념, 그리고 식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eating이 아닌 intake, 섭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제품으로는 견과류 제품으로 시작해서, 아침간편식 모닝죽, 밀스 같은 건강대용식, 곤약젤리, 무설탕 스파클링제품, 아이스크림 등 저칼로리 디저트, 체중조절용 조리식품 같은 특수용 식품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식품 제조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푸드 B2B라는 식품산업포털도 만들고 있고, 저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끼를 챙겨먹는 요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맡고 계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제 명함을 보시면 R&D라고 써놨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할만한 새로운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혹은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에 완벽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낼 생각은 없어요.

고객의 반응을 보고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한다면 회사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과 다른 분위기라면 일단 직원들이 다 젊죠. 평균 나이가 30대가 안되다 보니 젊은 회사기도 하고, 아! 저희는 00님. 부를 때 00님으로 불러요.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고,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주고, 생일 축하해 주기도 하고요. 예전엔 사내 바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셰프들이 직접 만드셔서 배달해주는 케이터링업체에서 매일 다른 메뉴로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시간 안에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호소해서 이번달은 다시 출근시간을 조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규모가 작고 젊은 벤처기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업무 환경이든 업무 자체든 제기된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어려워하지 않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제품도 오히려 한번에 100% 완전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서 내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만들어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개선해 나갈 부분은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해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이 벤처나 개발에서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식품산업은 산업 규모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IT와 자동차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죠. 전체적으로는 큰 산업이지만 산업 주체들이 자잘하게 쪼개져있기도 하고, 지역적인 구분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한 제품도 범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의미있는 주제이고, 가장 변하고 개선될 여지가 많은 산업이라고도 생각해요.

식품이 흥미로운 점은 매일매일 먹다보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최소한 하루 세 번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하고 가벼운 것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대가 지날수록, 안전성을 고려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인하며 소비하니까요. 자신의 행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세대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될수록 식품이 중요한 산업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내 몸에 필요한 것, 안전성같은 여러 요소들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고,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 브랜드와 이 제품이 주는 가치에 동참하는 의미를 담아 제품을 소비하고 자신의 행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식품이 흥미로운 점은
매일매일 먹다보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이 선택은 단순하고 가벼운 것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소비 성향에 맞춰 각자의 취향에 맞는 식품들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해지는 것이죠. 벤처야 더욱 더 확장되고 계속해서 커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거고 그 외에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영역들은 벤처들이 해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식품업계라면 벤처라고 했을 때 하나의 핵심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식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기에는 기존 회사,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저희도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고객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기업의 정체성을 꾸준히 정립하고 있어요. 충분한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학부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했고, 동물생명공학전공으로 진입했는데 당시 연구 환경 자체도 사회적 이슈가 많았고, 생명공학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식품 쪽은 어떤지 들여다보게 되었죠. 식품생명공학전공 진입 설명회는 항상 SPC에서 빵 주고, 먹을 걸로 유혹했기 때문에 전공 출신 식품산업 사장님들이 많으시다는 막연한 정보로 흥미를 가지기도 했어요.

전공 진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명공학을 공부한 다음에 로스쿨을 가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러다 꿈꿨던 길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 교수님 저 식품회사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쭤더니 저의 은사이시던 이영주 교수님께서, "20년 전에 자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네." 하시면서 그 분을 만나보라고 바로 전화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당시 CJ의 부사장이셨던 정원균 부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식품기업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환학생을 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가장 인상깊었던 건 다들 스물 셋, 넷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이미 학원을 하나 운영해본다든지, 구체적으로 IT 비즈니스 쪽을 만들어본다든지, 자신에게 필요하고 꿈꾸는 것을 자유롭게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창업이라는게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벤처경영 동아리에 들어갔고, 서울대 벤처 네트워크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화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동아리에 들어가셔서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었을텐데 식품 벤처 창업을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전에 다양한 부분을 알아봤었어요. 유아영어교육, 의료, 식물원예, 마케팅...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었으니까요.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생때 "나는 식품기업 사장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대표님이 되셨는데, 학부생 때 생각했던 식품 기업의 사장과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그건 대기업 사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 같아요.(웃음) 방금 한 말은 농담이고요. 자유롭다가 가장 분명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막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크니까요.

반대로 단점이라면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 같아요. 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파도가 몰아친다면 해도 대기업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죠. 하지만 벤처기업은 그 파도를 그대로 다 맞아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그 영향도 크죠. 그런 걱정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큰 조직에 있으면 가용할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많겠지만 작은 조직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게다가 저희는 정말 맨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좋은 사수들이 많이 없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직장생활을 조금 해보고 창업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직장생활이 더 길어지면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질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의 경력들이 있으면 좀 더 의미있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큰 조직에 있을 때 시장이 돌아가는 게 잘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베이스가 탄탄하면
당연히 블록을 쌓아올리기도
쉽겠죠. 하지만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더라도
그 위에 다른 훌륭한 건물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이 절대적인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거죠.

선배님께서 예상했던 선배님의 미래 모습과 현재 모습은 비슷한가요?

"솔직하게는 졸업하기 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 되면 좋겠다'정도였지 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꿈꿨던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회사를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학생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경험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경험들이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블록을 쌓아올리는건데, 베이스가 탄탄하면 당연히 블록을 쌓아올리기도 쉽겠죠. 하지만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더라도 그 위에 다른 훌륭한 건물을 올릴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경험해보는 것도, 창업에 도전해서 잘 해내는 것도 무엇이 절대적인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거죠. 암튼 사장이 되겠다는 꿈은 막연했고 굉장히 먼 미래, 못해도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매칭했을 때에는 약간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생활에 특히 학업 부분에서 지금의 선배님께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식품생명공학전공의 모든 커리큘럼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하나 정말 주옥같은 시간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웃음) 아, 다 농담으로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정말 기초적인 공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산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미생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이 유산균인지도 알기 때문에 대충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면 대충 아는거예요. 그 종류나 세부요소는 지금부터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감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면 너무 막연했을거예요. 당장 써먹을 것 같지 않은 유기화학도 공부해두면 분명히 쓸 데가 있거든요. 식품, 바이오적인 부분들, 생명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언제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쌓아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전공공부를 하며 얻은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은 나중에 배우려면 또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미래의 공부를 위한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 때 배우는 것은 분명히 광범위해요.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해진다면 그 쪽으로 좀 더 좁혀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고 당장 도움 안되는 조언이기는 하지만 전공 수업들은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저도 '열심히'의 범위를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정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배우는 것들이 미래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쌓아두면 분명히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생 시절에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위기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성공적인 경험이었는지, 위기였는지는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교환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싱가폴로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할 용기와 영감을 주는 친구들이었어요. 아직도 매년 연락하고 만나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 선택지가 그렇게 좁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르게 크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해야 서울대를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교환학생 가서 만난 친구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도덕적인 것에 걸리지 않는다면 바꾸고 도전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학업뿐만 아니라 '학부생'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을 도전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대외활동, 인턴 같은 외부활동도 하고 싶으면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한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 인턴이 와도 젊은 감각으로 인스타를 잘 활용하는 업무만 해줘도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혹여 거절당하더라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넘기고 다음 기회에 더 나은 제안으로 도전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대학 졸업 전에 꼭 해봐야 하는 일로 후배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꼭 추천하기 보다는 제가 한 것 중에 벤처네트워크는 목적성이 뚜렷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시너지가 나는 게 좋았고, 중앙동아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매일 저녁 PC방에서 보냈던
> 시기도 후회하진 않지만,
> 그때로 돌아가면
> **쌓아갈만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쉬웠던 일?

"아쉬운 거는 축구동아리를 했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식공 1968 파이팅(웃음) 그리고 좀 더 선배들을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들을 많이 만나서 간접 경험 혹은 직접 경험에 대한 팁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턴하고 싶다면 먼저 경험한 선배가 생각하기엔 어떤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어리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도전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쉬운 건 목적성 없이 보낸 시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 시간이 저에게 낭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적성이 있는 시간들이 쌓여간다는 게, 한 시간 한 시간 병렬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 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차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쌓아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국현 교수님이 쓰신 '축적의 시간'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가 쌓아나가는 경험들이 정말 회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저녁 PC방에서 보냈던 시기도 후회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쌓일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취미든, 뭐든."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당면한 과제는 이 회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이 당면한 과제가 지나간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뒤를 크게 고민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다음의 스탭을 고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밟고 있는 이 스탭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해요. 미래라고 할 때에는 이 회사 뒤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의 가치와 미래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생대 졸업생으로써 가지는 강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종합대학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예요. 농업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굉장히 다른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제는 경영, 경제, 바시공은 기계과, 바소공은 소재, 식품공학은 생명공학. 이런 다양한 과들이 모여있다는 점의 메리트 장점을 학생들 스스로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농생대에 있다고 해서 농업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자극도 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점도 많아요. 일방적인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능력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접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농생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16기 이유진
16기 이호영
편집 | 16기 이유진
16기 이호영

'이거 아니면 안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마세요

돌아보니 진정한 목표를 위한 토양이 되어있더라고요.

식품생명공학전공 88학번
관능검사기관 SENSOMETRICS 대표
조완일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1988년 식품공학과에 들어온, 88학번 식품공학과 조완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2학년 마치고 현역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공부에 흥미가 생겨서, 공부를 한 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리온'이라는 식품 회사의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있다가, 이전에도 컴퓨터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잠깐 이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2005년 겨울에 센소메트릭스라는 관능검사기관, 회사를 설립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석사를 졸업하신 건가요?

"그렇죠. 석사를 졸업하고 오리온 회사에 들어간거고, 회사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식품과 관련해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파트타임으로 박사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 이후에는 식품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지는 않다 보니까 식품하고 멀어져서 박사졸업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교수를 하거나, 식품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다면 박사학위를 위해 졸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지만 제가 그렇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수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센소메트릭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센소메트릭스, SENSOMETRICS라는 회사명을 분석해보면, 센소는 sensory, 즉 '감각'에 관한 의미고, 메트릭스는 metrics,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학회도 있습니다. 센소메트릭스는 결론적으로 식품 또는 화장품의 감각적인 자극으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반응을 데이터화하여,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큰 식품 기업이나 화장품 기업에서는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런데 센소메트릭스는 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계 분석을 하도록 도와주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CJ나 KT&G등 대기업에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업무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 회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리서치 회사와의 차이는,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와는 달리 응답자들이 직접 제품을 먹어보고, 발라보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얻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보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설은 또한 단순히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감각적 자극이 제품을 평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동안 조명의 색을 다르게 해보고, 습도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통계의 결과는 외국계 글로벌 컴퍼니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뢰를 할 때에도 우리 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아직 이 시장이 작아서, 우리 회사처럼 전문 감각 테스트 시설을 갖춘 회사가 잘 없고 의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 우리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점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유럽 같은 경우는 사람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장이 꽤 크고 잘 발달되어 있어, 저희와 같은 기관이 많이 있어요."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장,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회사가 크지 않아서, 사장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사이트에서 직접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장인 만큼 직원들에게 대기업만큼의 금전적 보상이나 복지는 아니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자부심은 느낄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도 있기에 직원들과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 지금까지는
> '식품과 사람의 교감'을 알고,
>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 많지 않았으니까,
>
> '맛있음연구소'를 통해서
>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이 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대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 사람이 감각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해석을 하는 일은 식품을 떠나서 패션이나 자동차등 온갖 영역으로 넓힐 수 있지요. 한편 사람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곳에서 이 분야가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사람의 반응을 중요시하고 연구가 잘 돼있어서,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는 지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유럽 기업도 물론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에 주목을 하겠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인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sensory test가 훨씬 더 미래가 밝은데, 한국은 아직 의문입니다. 제가 식품 회사를 나온게 2000년이었고, 20년이 흘렀는데, 한국이 '사람의 마음과 반응을 고려하는 사회발전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별로 안됐더라.' 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의 발달과 연결되기도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만 이런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사업, 분야의 전망 자체는 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국민의 '인간의 마음이나 반응에 대한 관심도'가 이후에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회사에는 '맛있음연구소'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센소메트릭스가 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의 영문 명은 'food&mind house'입니다. '맛있음'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delicious, tasty와 같은 영단어를 떠올리실텐데, 저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맛'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식품과 사람의 교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맛있음연구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나중에 개개인의 반응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들이 생기게 되면, 점차 '맛있음'의 의미에 다가가게 될 겁니다."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학부 시절에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부모로부터 많은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제 시기에는 부모님께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빨리 사회로 나가 돈을 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병역특례로 대기업에서 3년동안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2학년때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죠.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가기전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가 다시 생기고, 제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전공에 대한 고민도 컸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는 농생대 내에 농학과, 식품공학과, 농생물학과 쪽이 비교적 취업하기에 유리하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식품공학을 선택했었는데 나중에 원예학에 관심이 생겨서 그 쪽으로 전과를 하는 상담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전이나, KT라는 기업에 종사하는 선배님께도 찾아가서, 제 진로분야와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정보를 얻어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보고, 정보도 얻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식품 회사 연구소에 들어가서 식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학부시절에 컴퓨터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구입하고, 여기에 푹 빠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식품 회사에서도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나처럼 연구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식품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는 이러한 영역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대중화 되기 이전이었고, 학부 시절에 pc통신이 막 도입이 되어서 농산물의 수출, 수입을 알아보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다음 질문의 답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절이어서 그런지 물론 제가 생각했던 진로와는 다르죠.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은게 현재의 직업과 제가 대학시절에 생각했던 식품연구원이라는 진로와 비교해보면 식품이라는 큰 맥락에 같이 속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진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처음에 내가 A라는 직업으로 갔다가 B직업으로 간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로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진로에 대한 기대가
> 달라지는 것은 당연해요.
>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로 잘**
>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대학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식품 공학과였지만 다른 과 수업도 많이 들었습니다.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농경제학과 수업도 다 들어봤죠. 특히 조경학과에서 들었던 수업의 한 예로, GIS라는 것을 접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 때는 국가 지도가 하나의 통일된 포맷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한국 지리 지도원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지도를 데이터화하는 것도 보기도 했었고, 결국 이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취합하고, 원격으로 무언가를 하는 부분들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또한 농업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도 어떤 것을 규정화하고, 발전의 논리를 세우는 것을 배우고, 저에게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 전공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가 있어요. 과거에 김치냉장고를 개발하신 식품공학과 전재근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선생님은 모든 과제를 컴퓨터로 해오고, 이를 프린트를 해서 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열역학을 배우면 파이프에 열이 흐르는 과정을 컴퓨터로 다 그리는데, 이 과정에서 캐드도 배우고, 프로그램도 짜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위기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도 보면 양 쪽 다 사람을, 인간을 고려하는 부분이 없죠. 어짜피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봐야, 자신들에게 중요한 총선에서 못 이기게 되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한편 저는 2000년에 식품회사를 나오면서 한국도 유럽처럼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안 바뀌더라고요. 아직도 보면, 식품 때문에, 재료로 속여서 위생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이런 것은 좀 더 사람에 고려를 해서, 식품이 완전히 안전한 것임이 소비자들에게 낙인된 상태가 돼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나 금전적인 것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10년후에 이 나라에서 나의 생활이 쉽지 않는 나라구나, 내가 이거를 극복할 능력이 안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위기인 것 같아요

제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벤처의 붐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그런 상황에 따라 기업을 세웠는데, 이것도 금방 거품이 꺼져서 제가 접자라고 생각을 했을 시기보다 5년을 앞당겨서 사람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가 선택한 길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고집,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은 더 버티게 된거죠. 그렇게 5년이 지났더니, 점점 현실을 느끼게 되고, 그게 극에 달한 시점이 되서야 편안한 쪽으로 이직을 원하여 한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자리에 제 후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지원을 해서 경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면이나 다양한 면에서 훨씬 유리했죠. 그런데 면접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자네는 "자네는 여기 꼭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후배는 사회 초년생으로 지원을 한 거고, 꼭 돼야하는 상황인데, 나는 워낙 능력이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아직도 내 능력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힘을 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같은 진로를 꿈꾼다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를 테니까. 그런데 사업을 꿈꾸는 후배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스무살 언저리에, '이거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 내가 하나를 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큰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생은 길고, 길게 놓고 보면,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 일을 다시는 못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됐던 게 나중에 보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다양한 경험이 이런 토양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 '서울대'라는 학벌을 떼고 군인으로서 생활을 해보면서 어느 대학을 나왔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막상 일이 닥치고, 후회를 할 지도 모르지만 인생에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후회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는 학교가 굉장히 열려있어서 외부에 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특정 나라에 어학 연수를 가보고, 봉사활동을 해보고, 쉬면서 일도 해보고, 대학원을 가서 인턴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죠. 반면 저는 너무 전공, 대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28살은 사랑 때문에 죽고자하는 생각은 안 들 수 있지만, 20살은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만 이성에 빠져서 사랑을 해보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도 있고, 풋풋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꼭 사랑을 해보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사랑'은 꼭 해보세요.

28살은 사랑 때문에
죽고자하는 생각은
안 들 수 있지만,
20살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은 식품이든, 무슨 제품이든 간에 개발하는데 사람들을 고려하는, 원하는 방향에 맞춘 그런 제품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인데, 그것 역시 제품을 만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맛이 아닌 맛있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맛있음을 생활화하는, 자기가 다양한 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을 하면, 식품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맛있음에 대한 일을 하려는 게 앞으로의 제 사업 계획입니다."

농생대 졸업생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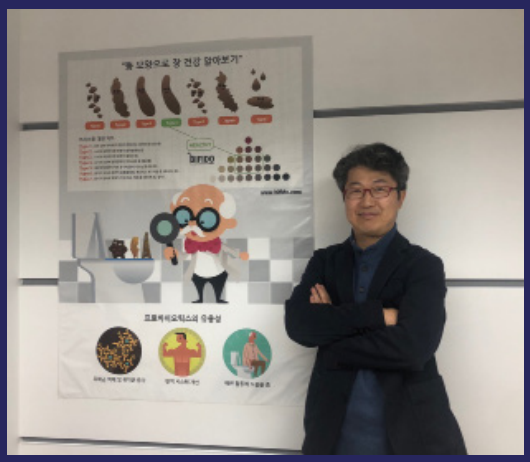
"강점은 언제 나오냐면, 자기가 '농'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생대가 가지는 강점은 농생대생이 되었다고 생기지 않고, 농생대를 졸업했다고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농'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다른 말로 이 땅에 모든 산업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화학과를 다녔다, 라고 하면 화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재료들도 농업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의학을 하는 데에도, 의사가 무엇을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농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생대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관심이 어디로 가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생대를 졸업해서, 자동차 기업에 진출 했다면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이라는 근본 산업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어떤 일로든지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강점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뷰 | 17기 김상원
17기 윤정인
편집 | 17기 윤정인
16기 손준혁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면 더 좋고.



식품생명공학전공 90학번
비피도 연구소 연구소장
박명수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90학번이고, 식품공학과(현 식품생명공학전공) 박명수입니다."

지금 재직중이신 직장에 대해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몸에 좋은 유산균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에서부터 완전 제품 생산까지 전체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움'이라는 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장 마이크로바이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에는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마이크로바이움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있는 균 전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합친 것을 말해요. 우리 몸에 세포 숫자가 대략 60조개가 있다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숫자가 100조개가 넘어요. 그래서 세포 수로 치면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비해서 장의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100배정도 더 많아요. 그런 미생물이 우리 장 속에서 평생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발병하는 질병의 90~95%정도와 연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증과 같은 뇌질환도 장 속에 있는 균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장 속 미생물의 구성과 정상적인 사람들의 구성이 굉장히 달라요.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좋은 균을 찾아낸다면 여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죠. 저희는 현재 과민성 장 증상이나 대장암과 같이 장을 타겟으로 하는 질환들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강기능 식품회사로 1999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20년정도 됐고, 최근에는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치료제까지 다루면서 마이크로바이움 회사로 작년에 상장도 했습니다. 복잡하네요.(웃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인터뷰를 준비하다보니 올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연구의 성과인가요?

"올해 한국식품과학회에서 감사하게도 기술진보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석사, 박사 과정 때부터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비피도라는 이 회사를 창업하고 계속해서 비피더스만 연구해왔죠.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경험이 쌓이고 연구했던 내용도 누적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웃음)

비피더스 자체가 재미있는 주제에요. 비피더스는 산소에 노출이 되면 해독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독으로 작용해서 죽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방된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는 다루기 까다로운 균인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연구하기 꺼려해요. 조건이 까다롭고, 동일한 시간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손도 많이 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R&D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유용한 균을 뽑아내는 것부터 그 균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할지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연구 과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균을 찾아야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먼저 류마티스 환자들과 정상인들의 분변을 받아서 균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균주 은행을 만들면 500종에서 1000종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떤 균이 염증을 낮추는 능력이 제일 좋은지 실험 모델을 두고 다 테스트해요. 전체 균이 500개라면 1등부터 500등까지 서열이 정해지겠죠. 그 중에 상위 10개의 균을 골라서 이것들이 안전한 균인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대량생산이 가능한지 등의 여러가지 평가를 거치고, 이후 동물에게 먹이고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지 평가하는 연구를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도 해야겠죠? 영업 마케팅 분야, 해외 수출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분야들이 저희 회사에 있는데 저는 주로 R&D 파트를 담당해요. 공장에 스케일업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영업마케팅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설명된 자료를 만들어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분들께서도 영업쪽보다는 R&D쪽으로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교수, 연구소 쪽으로 진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만 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해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R&D만 있는게 아니라 기술, 영업 또는 마케팅 분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R&D만 포커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 창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적성이라면 공부를 파고들어서 하면 좋죠. 그런데 식품생명공학 분야 자체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니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 결국 먹는 것을 개선해나가는
> 문제가 중요해지니
>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쏟아질,**
> **사라지지 않는 분야라고**
> **생각합니다.**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전망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에 많은 부분들이 AI로 대체가 된다고 하죠.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조, 개발, 요리까지도 로봇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식품은 단순하게 먹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목적에서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마이크로바이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먹는 것을 개선해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니 이 분야는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거에요. 아마 잘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분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쏟아질, 사라지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시절 경험과 진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학부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학부 때에는.. 오래전이라..(웃음) 90년도에 입학해서 3학년 때까지는 사실 별로 재미있는 건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때까지 되게 열심히 하고, 사춘기도 유보한 상태에서 대학을 오는데, 1학년 때에는 많이 놀았고, 2학년 때에도 많이 놀았고(웃음), 3학년 때에도 많이 놀았는데, 그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중앙동아리 화현회라고, 클래식기타 동아리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도 못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솔로까지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었어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들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전에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되니까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을 남은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하고 있다가 3학년 말부터 했는데 어렴풋이 제가 학계로 나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했어요. 대학원 석사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할지 박사 과정을 들어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나중에 대학원을 가신다면 경험하시겠지만, 석사 들어가면서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실제로 내가 실험을 해서 새로운 걸 알아내고 실험과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게 더 재미있어요. 그저 식품미생물학 교재에 균 이름 외우고 식중독 메커니즘 외우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문헌이나 논문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교재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박사 과정도 가기로 결정했고,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병역특례 박사 시험이 잘 돼서 박사까지 계속 비피더스를 연구했습니다."

비피더스균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연이었어요. 제가 석박사를 지낸 연구실에서 지근억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분과 같이 연구를 하며 인연이 이어져 94년 말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죠. 지금도 지근억 교수님이 비피도 대표세요.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장 속 세균에 대한 연구가 미개척분야인 것을 아시고,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89년도에 돌아오셔서 그 연구를 시작하신 거죠.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와중에 저도 같이 94년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수원에 있었고 교수님은 춘천에 계셔서 방학 때 가서 실험하고, 학기 중에는 수원의 랩에서 실험하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비피더스 연구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피더스의 유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에서의 연구 말고는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잘 나오면 굉장히 새롭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구한 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정말 보람있는 일인데, 비피더스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가 있었죠.

원래 되고 싶었던
교수도 경험해봤지만,
분명한 책임감과 목표의식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고 확신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접 경험하시고 계시는 직업이 대학 때 예상했던 직업과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예전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99년에 박사를 받고 원래 포닥(박사후연구원)을 갈 계획이었는데 병역이 아직 안 끝나서 못 갔어요. 마침 그 때 벤처 붐이 엄청 부는 시기여서 저희도 바이오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에 창업을 해서 낙성대에 한참 있다가 춘천으로 생산 공장이 필요해서 갔다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사는 홍천으로 옮기고 여기는 사무소만 남았어요.

그러면서도 R&D기반 기업이다보니 논문도 많이 썼고, 좋은 기회가 되어 2005년에 연성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도 이 회사랑 계속 일을 했어요. 올해 1월까지 연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학교에 대학 교수로 있는 것도 좋은 직업이고 안정적이지만, 회사에 남아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하고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와 연관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하고 회사도 도약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기다보니 그 목표를 위해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원래 되고 싶었던 교수도 경험해봤지만, 분명한 책임감과 목표의식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고 확신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학 생활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연구자, 또는 교수님의 모습과 직접 경험하신 것과의 차이가 있으셨나요? 사실 학부생으로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지는 너무 막연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연구하는 교수다. 그러면 직접 실험관이나 파이펫을 들고 실험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대학원생들이 하고, 교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로 직접 실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2017년에 연구년을 미국으로 다녀왔는데, 그 때는 직접 실험을 했어요. 사실 그때가 이직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15년정도만에 다시 벤치에 앉아서 실험을 하면서 '아 이게 더 재미있고 나에게 더 맞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막연히 상상했던 과학자, 연구자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 성격이나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연구직에 적합할까요?

"우리 식공과나 이 분야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다만 연구와 비즈니스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영업이나 마케팅 쪽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리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사고가 잘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을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같이 창업을 하게 된 분들로 지근억 교수님, 그리고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친구도 물론 연구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옆에서 실험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수익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동료의 사고가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근억 교수님이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고, 이 친구는 이것을 실용화, 상용화하는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20년 이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자의 성향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받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연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 벤처 창업을 하든,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들 중 하나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잘 만나면 시너지가 잘 날 수 있죠. 지금 보면 식공과 출신 중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물론 많은 고민 후에 시작하겠지만 자신의 자질을 어떻게, 언제, 누구와 표출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시절에,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선배님 자리에 오시기까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가 석사 때부터 재미있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재미를 느낀 경험이 있어요. 농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과목이 최양도 교수님의 분자생물학이었어요. 그 분의 수업을 듣고 그 내용 자체도 재미있었고,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그 수업이 계기가 되어서 분자생물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근억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대장균의 분자생물학은 너무나 많이 연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오리지날리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피더스의 분자생물학을 해야되겠다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반 학기정도가 날아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실험 결과가 왔다갔다 하면서 안 나왔지만, 점차 연구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석사 때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분자생물학이 좋았고, 생화학도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어요.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이 굉장히 연결도 되어있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삼수강 한 과목도 있었고(웃음)."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선배님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위기가 있으셨나요?

"위기라기보다는 99년도에 포닥(박사후연구원)을 미국에 미네소타 대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병역특례 기간이 안 끝나서 못 갔어요. 그 때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다 있었는데 다 틀어져버리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뭐 만약에 군대를 가거나, 대학원을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안 가본 길이니까."

후배들에게 대학 때 꼭 해 보았으면 좋겠다거나 이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웃음). 놀기도 많이 놀아보고, 연애도 해보세요. 저도 많이 놀았어요.

저는 악기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기든 운동이든 뭔가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게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기 취미를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좋죠, 당연히.(웃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놀기도 많이 놀아보고,
연애도 해보세요.

악기든 운동이든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당연히 회사가 잘 되도록 더 키우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움 기반의 치료제 개발을 장기 목표로 두고 나아가고 있는데, 잘 풀려서 정말 식품을 넘어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소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프로바이오틱스는 계속해나가는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발전된 카테고리를 치료제, 신약 이런 것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농대 컴플렉스라는게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전공마다 특성이 있고 그 쪽의 진로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 점수로 끝까지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서울대 들어올 정도면 그 분야에서 누가 봐도 탑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고 그 안에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기준을 고등학교때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보니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분야별 특성이 있고 그 분야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공을 쌓으면 인정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분야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면 더 좋고(웃음)"

인터뷰 | 16기 이유진
편집 | 16기 이유진
16기 이호영

2019 CALSIAN TEAM SE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Animal Science and Biotechnology

이지현 선배님 … EASYBIO P.18

김주현 선배님 … LG 생활건강 P.23

신승민 선배님 … CTCBIO P.28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을 거예요.
편한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동물생명공학전공 89학번
이지바이오 축산과학연구소장
이지현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89학번이구요, 축산과로 들어와서 동물자원과학과로 졸업한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직 중이신 이지바이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89학번인데 사회생활 시작은 석사를 졸업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라는 회사에 97년도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21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만두고 올해 1월 1일자로 이지바이오로 왔어요. 이지바이오는 올해 31년째 되는 회사이고, 우리과 73학번 선배님이 사료첨가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10년 이상 성장을 해오면서 여러 번의 합병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 사료, 도드람 B&F, 이지 팜스등 사료 회사부터 마니커라는 닭고기 회사, 정다운이라는 오리 회사까지 인수를 했고 도축장, 농장, 양돈장도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사료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은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외식 사업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돼지 사료도 만들고 돼지사료 첨가제도 만들고 돼지도 키우니까 돼지고기 식당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비자 반응도 볼 겸, 우리 직원들 와서 밥도 먹을 겸,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축산의 전 영역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작은 하나의 첨가제 회사에서 시작해서 국내 축산 전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 이제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축산 종합회사로서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시작해서 인재가 필요한 그런 회사죠."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축산과학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고, 직급은 상무이사입니다. 사료의 최적의 배합비를 짜는 제품관리팀과 각 축종별 R&D팀이 서울 사무실에 있고요, 충북 영동에서 돼지와 닭을 키우는 연구농장이, 인천에는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분석센터까지 4개 팀, 23명정도 되는 축산과학 연구소를 총괄하는 일을 합니다."

이지바이오 내에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졸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가 전체 한 3,500명 돼요. 그 중 전문화된 영역에서 우리 동물자원과학과 출신이 일을 하고 있죠. 30명과 50명 사이 정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저희는 평소에 학연을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직접 업무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 저 사람이 축산을 전공했다', '그 중에서도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정보를 아는데, 정확한 숫자를 인사부 외에는 아마 알지 못할 거에요. 단일 기업중에서는 동물생명공학전공 출신자들이 가장 많은 회사의 top 3~4 안에 들거라 예상합니다."

이 분야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제 아들이 17학번 경영학과고 딸이 18학번 미대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 20년 뒤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분야도 2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죠. 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서 우리 산업에 들어온 지가 22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산업적 지형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사료 영업팀으로 들어와서 이후 사료 배합비 업무를 했는데, 배합비 연구 업무는 20년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영업이나 생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달라졌죠. 그래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산업은 예측도 강제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좇아
동물성 제품을 만드는 일은

결국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우리가 가장 잘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게, 20년뒤가 되더라도 많은 challenge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의 새로운 변화들이 20년 뒤에는 상당한 부분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축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문제이기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생산하는 것이 때로는 더 선호를 받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더 훌륭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유기농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 농업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농업 작물이 훨씬 더 사람의 건강이나 식품의 안정성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유기농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다루는 산업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는 부분과 변치 않는 부분이 혼재할 것이고, 우리 산업도 전통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제일 잘 할 것이라고 믿어요. 배양육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산업이 바뀌어서 우리 전체 먹거리의 상당량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조철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일 잘 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웃음)

사람들이 뭘 먹느냐는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지만, 그 일을 좇아가고 산업을 만들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성 제품을 만든다는 일은 결국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우리가 가장 잘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학부시절 경험을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학부 시절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80년대 학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복 받은 학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 취직은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했어요. 실제로 나는 2학년, 3학년때까지 전공 수업 들을 때 맹세했거든요. 나는 죽어도 사료 회사는 가지 않겠다(웃음). 왜냐하면 선배들이 사료회사에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축산과를 나왔지만 좀 다른 일을 하려고 환경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졸업하고 나서 환경 쪽으로 지원했는데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축산 환경'이 너무 작은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 '축산환경 쪽을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축산을 배워라',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축산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료회사를 가서 영업을 하면 축산을 배울 수 있다고 하시길래 축산을 배우려고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또 아이가 생기니 전국을 돌아다니는 영업 업무가 어렵게 되어 배합비 업무를 시작했고, 10년을 했죠.

지금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민이 많은데, 이해가 돼요. 근데 황금 시대를 살았던 선배로서 감히 말하자면, 미래를 너무 확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이 것을 준비해서 좁은 바늘 길을 통과해서 내 인생을 완성해야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얻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10퍼센트도 안되는 것 같아요. 27살에 내가 앞으로 이리저리 좌충우돌해서 49살에 이지바이오 축산연구소장이 되어 있을지 알았을까요? 죽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기회를 따라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내가 10년뒤에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10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진로라는 게 뭘 확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좇아가는게 제일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 시대를 살았던 선배로서
감히 말하자면,
미래를 너무 확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좇아가는 게
제일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석사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가장 힘드셨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문화적 차이죠. 학부 생활은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결과가 오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학원은 조직에 가는 거고 직장에 상사와 같은, 때론 상사보다 더 엄격하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존재하는 체계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차라리 '너 하루에 10시간 공부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생각을 이 틀에 맞춰',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연구보고서를 쓰고, 연구 계획서를 써도 폰트는 어떻게 맞추고 논리 전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험실마다 다 달라요. 지도교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질문의 연장선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취직을 하는 방법과 학부만 나오고 취직을 하는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그보다 먼저 이야기 하고싶은 건 취직할 때 전공, 석사 학위 여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취직을 하고 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되면 그 차이는 다 없어져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만들어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면, 석사를 하고 오면 기술직을 하기가 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물어본다면 결국 스스로 기술직이 적성에 맞아야 좋은 거라고 답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석사학위 없이 취직했는데 기술직이 좋으면 그 때 공부를 더 해도 돼요.

나는 석사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해 볼만 합니다.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해 볼만 해요. 그렇지만 석사를 안 한다고 시작하는 라인에서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부생 때 사료 회사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사료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학부생 때 생각했던 사료 회사의 모습과 지금 직접 경험하시는 모습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학부 때는 사료회사라는 길이 고민이 적고 준비가 적고 도전이 적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저희 동기중에서는 사료에 관련된 일을 하는 동기가 44명중에서 서너명 밖에 안돼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죠. 사료 회사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학부생 때와 지금의 업무가 비슷한 지를 떠나서 사료 회사에 취직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축산과를 졸업해서,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나가든 아니든, 나는 계속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그래도 너는 전공으로 먹고 살잖아.'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요."

지금의 선배님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위기가 있었나요?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있었을까요? 그 과정 거쳐올 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의 위기를 1년, 3년, 1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1년이 지나갈 때, '내가 진짜 맞는 선택을 한거야?', '여기가 비전이 있는 직업이야?' 이런 생각을 지울 때까지 1년이 걸려요. 3년차가 되면 주변에서 비교가 돼요. '이 길로 가는게 맞아?', '내가 더 좋은 기회나 더 다른 길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서 10년차가 되면 조직에서 어느정도 전문가가 되죠. 그런데 이때쯤 되면 매너리즘이 와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게 우리 세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위기의식의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너는 전공으로 먹고 살잖아."

위기는 무지하게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 그때가 다 재미있는 기회였어요. 대표적으로 질문을 바꿔서 '직장생활에서 되게 힘들었던 상사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모셨던 상사가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한 분 한 분 다 싫었던 거 이야기하면 두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어요.(웃음) 그런데 제가 어느정도 위치에 오고 나니까 그 여덟 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줬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시점에서 위기라는 게, 한편에서는 위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위기를 이겨내고 나를 성장시켜준 자양분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 모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에서는 진짜로 그만두고 싶었었죠.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출근하기 싫어', '저 사람 안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고, 힘든 타이밍이 있었고, 힘든 인간관계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나오고 나면 추억이에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소장님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죠."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셨을 때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 '너 스무살로 돌아가서 대학생활 다시 해볼래?'라고 묻는다면 저는 싫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대학 다닐 때 하고싶은 거 다 했으니까. 풍물패 '두레'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도 별의별 공연을 했어요. 무대연극도 해봤고, 마당극 공연도 해봤고, 방송부 제의도 와서 알바도 해보고, 해보고싶은 거 다 해봤어요.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하고, 영어시험도 봐야하고, 인턴도 해봐야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라도 경험을 못해본 게 후회지, 내가 '그 때 도전하지 말고 집에서 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워도 바빠도 한번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도 아직 체력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선배의 개인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 들어주세요. 축산을 하세요. 법정스님께서 진로나 취직에 대해서 '아무도 안가는, 월급 조금 주는 데를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능력이 100인데 월급을 150주는 곳을 가면 내 능력이 100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상사 눈치를 보고 나를 뽑아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100인데 월급은 70 주는 곳을 가면, 상사가 내 눈치를 보고 사장님이 내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기성세대가 열정 페이와 같이 후배세대들을 착취하고있는 구도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축산 분야가 지금 처음에 오면 마진은 높지 않아요. 벤처나 바이오 벤처나 이런 데에 비하면 성장률이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해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훌륭하게 처우를 못해주거든요. 월급도 기대보다 적고 처우도 기대보다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열정 갖고 일하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착취하는 거 아닌가라고

나를 더 담금질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나 조직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편한 길보다는
더 여러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도는 없어요, 적어도.10년차 직장생활하고 조직생활에 고수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연봉 1000만원 때문에 옮기지는 마세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도전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조직을 옮겨도 돼요. 적어도 10년까지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더 담금질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나 조직을 가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축산에 와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꼭 축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힘든, 그러나 많은 것을 얻을 수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후배님들 앞에는 많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편한 길보다는 더 어려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16기 이유진
17기 김상원
17기 이정은
편집 | 16기 이유진
16기 이호영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아무리 유망한 분야라도 본인이 흥미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동물생명공학전공 06학번
LG 생활건강 선임연구원
김주현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06학번입니다. 졸업년도는 1년 휴학을 했어서, 2011년에 졸업을 하고, 석사는 본교 의과대학에서 했는데, 기초의학 전공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의 전반적 설명을 부탁드리며, 선배님이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화장품, 세제 또는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쓰는 많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평가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제품이 정말로 안전하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점검합니다. 회사의 비전은, 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얻으며 업계에서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저는 안전성 연구 랩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5년차 선임 연구원입니다. 근무는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제게 주어진 마무리 시간인 5시 반에서 1시간이 더해진 6시 반까지는 업무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야근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복지를 중요시합니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첨언하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따라서 업무 외 시간을 잘 지켜줍니다. 업무 외 시간은 정확하게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아이디어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은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쓰는 특정 성분들이, 제품 내에서 함량이 적절한지, 혹은 안전한지 아닌지를 문헌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최근에 쥐와 같은 동물을 이용한 동물 실험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이러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실험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루는 건가요?

"거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색조 제품에 들어가는 색소나, 생활용품 전 제품에 들어가는 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한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반적인 것들을 할당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영업직과 같은 일반 회사원과, 연구원은 차이가 있는데, 연구원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것과, 하루 일과 같은 것을 알려주세요.

"대학원생의 삶에서, 저녁시간의 여유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대기업에서는 8시간 정도를 칼같이 근무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 중 3에서 4시간 정도를 실험하고 나머지 시간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던가, 문서처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은 실험하고, 반은 문서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랩 (Lab)과 일반 사무실이 그렇게 멀지 않고 공간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 짧게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전공은 면역학이고, 업무 하는 것은 독성학입니다. 이 쪽 전망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적인 성격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 실험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과 관련해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독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니, 대안의 실험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망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스갯소리로 나라가 망해도 화장품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 화장품인 만큼 회사의 전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겪었던 고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았는데, 제가 생명공학 쪽을 선택했던 큰 이유는 생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재미있으니까 배워보면 되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제게 비전을 제시해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가라고 하셨습니다.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는 저와 상당히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게 깊이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학년때부터는 점차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학년때까지는 대학원에 그냥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는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선생님과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식약처와 같은 곳에서 심사를 하는 연구직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러한 공무 연구직을 하게 되면 전공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세상에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하면서 다양한 것에 관련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등등 을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이러한 고민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휴학하면서 대학원 진학부터 다양한 것에 관련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 대학원에가서 연구하고 학위를 따면 되는 것인지, 또한 내가 과연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등등 을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이러한 고민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복학하고 지도교수님들과 면담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성향을 들어보더니, 우리 과 전공도 좋지만 기초 의학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고, 이것이 어쩌면 결정적으로 제가 대학원을 의과대학쪽으로 오게 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가 끝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1차 커리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였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교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교수님이 단순하게 강의를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외부로도 강의를 나가며, 연구비를 받고 연구도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곳에서 평생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는 학부 때 고민했던 막연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학부 시절, 막연하게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전공 수업을 듣고 생각보다 힘이 들어 바로 취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대학원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공 공부가 재미있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와 잘 맞는 것인가에 고민을 할 때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매일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시험 치는 것을 반복하다보면, 싫은 것들은 많아지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가 대학원이 적성에 맞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저처럼 휴학을 하면서, 학교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고민과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이것이 나와 잘 맞는 것인지
> 고민 할 때는
> 해결책이 있습니다.
>
> **정말 많은**
>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아리 같은 것, 혹은 학교 다니다 보면 걸려있는 수많은 현수막에 있는 활동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생때 만큼이나 활동을 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없거든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활동을 찾아보면,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칼시안 4기 였는데, 1학년때는 남들앞에서 이야기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가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런데 칼시안을 통해서 이를 많이 개선시키고, 나중에는 내가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가졌어요. 또한 봉사 동아리에 들어서,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었던 입시정보와 같은 것들을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뿌듯함도 많이 느꼈어요.

한편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해보니까 느낀 것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꼭 교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을 할 때에도, 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는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도 교수님께서 의대 쪽 연구를 추천하셨다고 하셨는데 면역학은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도 동물면역학 연구실이 있지만 기초의학 연구실인 면역학 관련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학부 때, 면역학 연구실을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의대에는 실험실 인턴 프로그램이 여름 혹은 겨울 방학에 열리는데, 그 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된 케이스입니다. 면역학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소개글이 이 쪽이랑 조금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턴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어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실험실 인턴 같은 것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에 내가 맞는 것인지, 대충 가늠이 되니까요."

학부생 입장에서, 저희 전공 교수님이 다른 전공으로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듣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 학부 졸업생이 다양한 곳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로 나가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석사 박사도 이 곳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꽤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 꿈꿨던 교수직과,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연구직 쪽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수님은 한 마디로 사장인거고, 연구직은 피고용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구직은 연구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연구하고, 그 매출이 발생하면, 또 이를 이용해서 연구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구비가 사전에 준비되고,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뒤에 다시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직은 교수라는 직업보다 성과가 비교적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보고서를 썼던 경험이, 지금 논문을 읽거나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과목이라고는 말을 못 해주겠는데, 실험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팀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있는 과목도 도움된 것 같습니다. 3, 4명 정도되는 조에서 업무 분배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현재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귀중한 경험이 돼요."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전공과목이 있으신가요?

"먼저 환경공학이라는 과목에서는 학우들과 팀플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발표 수업으로 가장 생각나는 과목도 있는데 세포공학이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장을 다 빼입고 가서, 발표 수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공 수업이 선배님과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재미있어서 혹은 성적이 잘 나와서,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재미있어서'였습니다. 저는 정형화된 객관식 문제보다는, 좀 더 대학교 형식으로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여러 과목을 들어보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아무리 유망한 분야여도
본인이 흥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가 있을까요?

"대학원생때, 통합과정을 포기했었던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지도 가늠이 안되고, 이 분야가 제게 맞으면서도 한편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 학문 쪽은 오랜 기간 연구에 집중해야만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것에 지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단 취업을 해보고, 생각이 있으면 다시 박사과정을 밟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저같은 경우는 의약학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에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하다보니 정착지가 LG 생활건강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당히 잘 맞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실험실 생활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학원생 시절 실험하고, 생활했던 경험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은 기업 연구직에서도 하는 것이니, 실험실 생활을 잘 수행하면 이런 업무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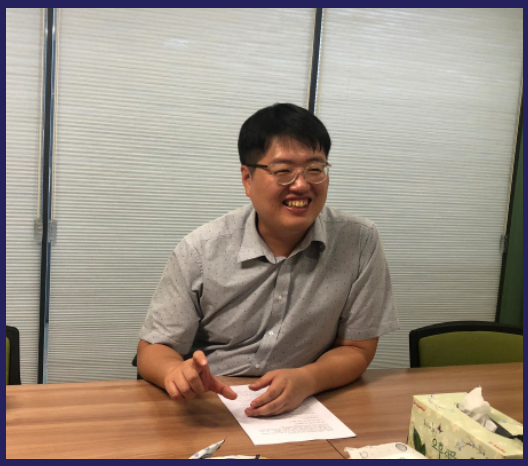
"앞서서 제가 하는 것은 독성학이라고 했었는데요, 원래 전공했던 면역학에서 살짝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을 더 쌓게되면 대학원을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것을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생대에서 연구하는 것은 기초학문보다는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생대라는 이름에서도 많이 느껴지지만 어느 부분에다 붙여도 스토리가 생길 수 있는 학문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생대는 전통적인 농업 분야도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학문과도 융합해서 다른 새로운 학문도 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터뷰 | 17기 윤정인
편집 | 17기 윤정인
16기 손준혁

전공 분야로 진출하겠다 결정하니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 04학번
CTC BIO 마케팅부
신승민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승민입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 전공이고 04학번입니다. 졸업은 2010년에 하고 바로 여기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중이신 CTC 바이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크게 3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나는 동물 약품으로,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 예를 들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줄이기 위한 소독제나 백신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료 첨가제입니다. 동물 약품과 사료 첨가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차이를 설명해드리자면, 약품은 주사제나 액상의 형태로 직접 동물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 사료 첨가제는 사료에 넣어서 동물이 먹도록 하는 제품이죠. 사료 첨가제는 배합비가 0.1%, 0.05% 정도로 양이 많지 않지만 동물의 성장이나 건강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인체 약품으로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인 CTCBIO에 저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는 change try challenge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하여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에요. 축산 업계에서의 새롭고 유익한 제품과 기술을 통해 전체 업계에 기여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저희는 나름의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 효소 제품인 CTCzyme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고 장영실상을 수상한 우수한 제품이고, 박테리오파지 제품은 항생제를 대신하여 부작용 없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TC 바이오 안에서 선배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외에 수출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데요. 업무 특성 상 한달에 1회 정도 해외에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 별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에 맞추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점과 하나의 시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로 제품 개발이나 연구 쪽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개발이나 연구를 위한 시장 정보 수집, 공유 및 아이디어 제공 등 간접적인 업무는 조금 진행하고 있어요. 더불어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시장

피드백을 함께 논의해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시장조사 자료를 보니 축산업의 성장률이 5% 이상이더라고요. 이 수치는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수치로, 성장률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게다가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 시장을 보면 더욱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더불어 세계 인구는 점점 늘고 있어 음식에 대한 수요와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축산물과 같은 음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축산 업계는 성장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경쟁률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학생이나 취준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겠지만 축산을 전공 했지만 축산업계로 뛰어드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에 비해 전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 출신의 학생들이 업계에 지원 한다면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업계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선배님 같은 경우 현재 마케팅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학부생 때 동물생명공학 전공에서 배웠던 것들이 근무할 때 실제로 쓰이나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영업과 마케팅 쪽이지만 판매하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공자들은 다른 비전공자에 비해 이해 속도가 빠르고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뛰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영업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직장이나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선배님의 개인적인 진로나 학부생활 경험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학부시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학년 때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도 바뀌고 아무래도 복학생이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학을 할 때 즈음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왔습니다. 취업을 잘 하려면학점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하자, 어차피 복학생이라서 놀 기회도 많지 않기도 했습니다. (웃음) 쉽진 않았지만 학점에 신경을 쓰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현실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졸업하면 뭐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이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써먹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결정했죠.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진로를 생각하니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써먹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결정하니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국담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선배님들께 연락을 해서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진로에 대한 문을 좁혀 나갔습니다. 결국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던 선배들이 일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CTC BIO로 오게 되었습니다. 취업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선택지를 좁혀 놓고 그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

그렇다면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직업이 학부생 때 생각하셨던 직업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가요?

"학부 때에는 정말 많이 몰라서 정말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과를 졸업하고 취직하면 농장이나 사료 공장에서 일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죠.

하지만 축산업계도 다른 회사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물론 사업의 주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는 주제보다는 어떤 업무를 맡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 마케팅, 인사, 총무, 회계 등 다양한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적성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죠. 따라서 회사의 사업 주제와 더불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적성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학부생 때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을까요?

"인턴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직접 보고 배우는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프로그램, 대회 등을 참여하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상금이라도 받으면 더욱 좋겠지요.(웃음) 이런 활동들이 연결되어 취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선배님께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기화학, 생화학과 같은 수업은 제품의 작용기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TCA cycle을 실제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에 사용할 때는 웃음이 나오더군요.

실질적으로는 경제동물학이라고 4학년 때 배우는 수업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농장 설계도 해보고 운영 계획도 짜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해부학은 전공 선택 과목이었지만 다양한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교양 쪽에서는 수업자체의 내용보다는 팀 별 과제발표를 통해 경험했던 인간관계와 발표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객들은 대상으로 설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와는 관계 없지만 카투사를 다녀온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래 영어를 잘 못했는데, 군대에서 배운 영어를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산 전공이라 그런지 의무병으로 배치가 되었고 병원에서 쓰는 용어들이 해부학 수업에서 배웠던 단어들이라 쉽게 적응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현재의 업무를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여행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시각은 장기적으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다니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이것 저것 경험하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니 대학생으로서의 기회를 많이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쌓아둔다면 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이것 저것 경험하길 바라요.
그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쌓아둔다면
계속해서 도움이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시기까지 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인생 자체가 엄청 굴곡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점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신나는 일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굳이 어려운 점을 꼽자면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인간관계들이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대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잘 맞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웃음) 적절히 선을 그어주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모두에게 잘 해줄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잘 해주려는 욕심이 오히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나쁜 놈이 되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하하."

마케팅 분야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네요. 선배님의 업무에서도 그러한 마케팅, 영업직의 고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업무 상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맡은 업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영업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문화의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교류보다는 객관적인 이야기와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 등을 위주로 이야기 하다 보니 인간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 잘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생명공학 전공생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일단 취업을 하려는 학생 기준에서 말씀 드리자면, 막연하게 다양한 업체를 찔러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취업 관련 서비스를 통해 자기 자소서를 기본으로 써놓고 여기 저기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원자들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지원자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원하는 바가 있고 그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따라서 목표로 하는 취업 범위를 가능한 명확하게 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취업을 원하는 업체의 뉴스도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전공 업계에 관심이 있다면 선배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기회를 알아보는 것도 좋고 공식적으로 업체의 인사팀에 연락을 드려서 구직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결정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저에게는 그 당시 진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갈 수도 있었고, 사료회사 쪽으로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것은 업무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게 전공지식과 영어인데 이걸 모두 써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입사하고 3개월 후에 출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웃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생각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재밌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 영어를 모두 활용하고 싶어
> 이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 **지금까지도 제 일이 재밌고**
>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해외 출장 나가신 것 중에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도시가 아닌 농장이나 사료 공장이 위치한 시골을 많이 다녀요. 덕분에 일반 관광객들이 볼 수는 없는 신기한 광경을 많이 봤죠. 인도에서는 사막 지형도 구경하고 러시아 갔을 때에는 백야현상과 밤새도록 기차도 타면서 신기한 자연 경관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웃음).

그리고 다양한 지역을 돌아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들이 정말 흥미롭고 tv에서 보던 것과 많이 다른 것을 느끼면서 역시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사 안에서의 계획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저도 함께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 업계에서 지금과 같은 업무를 해나갈 것 같네요. 가능하면 영어 외에도 잘 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언어와 관련된 시장에 집중해보고도 싶어요.

이제까지 크고 두루뭉술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하는 나라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많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공부를 해야 하겠네요. (웃음)"

> 지금처럼 계속해서
>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 노력할 것입니다.
>
> 여러 가지 생각은 많지만,
> 결국은 또 다시
> 공부를 해야겠네요. (웃음)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으로서 가지는 장점이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저희 업계에서 가지는 unique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숫자 자체도 많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 업계 자체로 진출하는 학생 수도 많지 않죠. 더불어 졸업한 학생들의 실력도 좋으니 수요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농생대 졸업생은 업계에서 소중한 인재가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에 계시는 선배님들의 존재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인터뷰 | 16기 이유진
16기 김현겸
17기 김상원
편집 | 16기 이유진
16기 이호영